

京畿地域語의 母音體系와 非圓唇母音化*

李 秉 根*

I. 序 論

言語의 모든 現象이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進化된다고 말하기는 힘든 듯하다. 예를들면 口蓋音化現象에 대하여 逆口蓋音化現象이 微弱하나마 존재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 近代國語의 特徵적인 音韻論的 現象의 하나로서 唇音 아래에서의 圓唇母音化(물>물, 불>불 등)는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이러한 變化에 反하여 唇音 아래에서 ‘오’>‘어’로 되는 몬저>먼저(先), 몬지>먼지(埃), 보션>버션(襪), 본도기>번데기(蛹), 붓나모>벗나무(樺), 썸>뺨(擘) 등 一連의 예들이 있음도 이미 지적된 바이기도 하다. 바로 이 0>o의 現象을 검토하려는 것이 本攷가 다룰 일인 바, 이 軟弱한 性質의 變化가 왜 그리고 어떤 條件 아래에서 이루어졌으며 확대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자못 흥미있는 일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圓唇母音化에 反하는 듯한 이 唇音 아래에서의 0>o로

* 本攷는 第2回 韓國文化人類學會 全國大會에서 「中部方言의 非圓唇母音化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발표한 內容 가운데서 言語人類學的인 것을 제외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 서울大學校 教養課程部 專任講師(國語學)

의 統合的(syntagmatic) 現象 및 그 확대가 京畿地域에서——地理적으로 충분히 확대될 可能性을 가지지만——어떻게 나타나며, 나아가서 그것은 母音體系에 대하여 무엇을 뜻하는지 記述하려 함이 本攷의 작은 意圖가 될 것이다.

國語의 唇音에 대한 研究는 國語音韻研究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中世國語의 資料에 집중되어 온 느낌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ㄹ」의 音價 및 音韻設定의 문제가 比較研究와 方言研究의 도움을 받아 極을 이루었다.⁽¹⁾ 또한 語頭硬音化 및 語頭激音化에서의 唇音에 관한 記述도 뚜렷한 國語史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²⁾ 그런데 現代國語에 있어서 特히 口語的 또는 方言的 資料의 수집을 통하여 本攷에서 다루어 질 唇音에 따르는 統合的 關係를 記述한 것은 아주 부분적이었다. ‘몬저>먼저’를 國語史의 觀點에서 「低舌母音化」로 보거나,⁽³⁾ 生成音韻論의 論攷 가운데서 「自由變異」로 보았던 것이다.⁽⁴⁾ 前者의 경우에는 音聲的 位置와 音韻構造와의 관계가, 後者의 경우에는 方言 사이에 나타나는 相異한 方言音韻體系의 概念이 각각 문제될 것이다.

近代國語의 중요한 現象 가운데서, 唇音에 따르는 ‘圓唇母音化’(i<u)의 발견은 近代國語 母音體系 자체의 해석뿐만 아니라 現代國語 母音體系의 해명에도 이바지하리라 믿어진다.⁽⁵⁾ 적어도 中部方言의 音韻의 方言體系(diasystem)가 圓唇性에 의한 對立의 짝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對立에 관련되는 統合的 關係도 고려되어야 할 줄 안다.

그런데, 어떤 統合的 構造가 分布만으로써 단순히 定義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그 統合的 構造는 系合的(paradigmatic)構造와

(1) 李崇寧(1954), 唇音攷(特히 唇輕音 “ㄹ”을 中心으로 하여), 서울大學校 論文集 第1輯

(2) 李基文(1955), ‘語頭子音群의 生成 및 發達에 對하여’, 震檀學報 第17號

(3) 劉昌惇(1964), 李朝 國語史 研究

(4) Kim C.-W. (1968), ‘The Vowel System of Korean’, *Language* 44

(5) 金完鎮(1963), ‘國語 母音體系의 新考察’, 震檀學報 第24號

立體的으로 관련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前者가 音韻論的 價値를 강하게 가짐으로써 後者의 力動的인(dynamic) 現象까지 보일 때는 두 構造는 더욱 밀접한 관련 아래에서 記述되어야 하지 아니할까 한다. 따라서 統合的 構造를 언제나 周邊的인 것으로 等閑視하여 버릴 수는 없게 된다. 이러한 面에서 앞으로 筆者는 唇音 아래서의 「非圓唇母音化」라고 부르고 싶은 이 現象에 관련될 方言形(ex. 보리>버리, 본>번, 등)을 중심으로 하여 京畿語의, 나아가서는 中部方言의 한 音韻論的 特徵을 記述하려고 한다.

II. 資 料

近代國語에서의 o>ɔ에 대한 皮相的인 記述은 近代國語 자체(特히 後期)에 대한 全般的인 記述의 不충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이에 屬하게 되는 例들이 앞에서 들었던

몬저(先) 몬지(埃) 보션(襪) 본도기(蛹) 붓(樞) 썸(擘) 등 少數에 한정된 데서 그 原因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이러한 極少한 資料에 比하여 京畿地域語는 地理的으로 中部方言 및 그 侵蝕地域語로 擴散되면서 統合的 音韻關係의 가장 뚜렷한 特徵의 하나 일 정도로 많은 用例를 가지고 있다.

I. 第一音節에서의 例

i) ‘本’을 포함하는 漢字語나 그 混用語(hybrid)는 흔히 ‘번’으로 나타난다.

본(本)>번

보늬(穀裏皮)>버네

본디(元)>번디

본마누라(本婦人)>번마누라

본밑(本錢) > 번밑
 본바닥(本土) > 번바닥
 본바탕 > 번바탕
 본보기 > 번베기
 본 : 테(없다) > 번 : 테(없다)
 본때 > 번때
 본뜨다 > 번뜨다
 본가(本家) > 번가
 본걸(本絹) > 번걸
 본서방(本書房) > 번서방
 본남편(本男便) > 번남편
 본부인(本婦人) > 번부인
 본심(本心) > 번심
 본적(本籍) > 번적
 본전(本錢) > 번전
 본처(本妻) > 번처
 본청(本廳) > 번청

ii) ‘ㄹ, ㄷ’ 등을 後續시키는 ‘보—, 포—, 모—’가 ‘버—, 피—, 머—’ 등으로 나타나는 例 :

보리(大麥) > 버리
 보리수(拘禁子) > 버루수
 불거리(疾腮) > 벌거리
 불때기(腮) > 벌따구니
 포대기(襪) > 피대기
 모루(鋸) > 머루 etc.

iii) ‘ㄷ, ㅌ’ 앞에서도 아주 약하게나마 때로 오 > 어 ([3])가 발견된

다.

모처럼 > 머처럼

보태다 > 버태다 etc.

Ⅱ. 第二音節 이하의 ‘오’가 ‘어’로 나타나기도 한다 :

너무(過) : 너머

부모(父母) : 부머

모본단(模本緞) : 모번단

버선본(襪本) : 버선번

봄보리(春麥) : 봄버리

—보다 : —버더(—버덤)

—(ㅌ) 보터 : —(ㅌ) 버터

—(ㄹ) 보고 : —(ㄹ) 버구

—부터 : —버터(—버텀, —부텀)

第二音節 이하에서의 또는 이에 準하는 位置에서의 母音의 變動은 第一音節에서의 그것에 比하여 그 對立的 價値가 크지 못함이 보통이어서 여기서는 이상의 例示에 그쳐 둔다.

第一音節의 경우에도 文字나 共通國語의 強한 影響을 받은 話者들은 그 程度差를 느끼어서 唇音 아래에서 ‘오’를 유지하는 方言形은 오히려 文語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本攷에서는 土着的 혹은 通俗的이라고 말하여 질 수 있는 方言形——Frequency Norm 도 포함하는——을 우선 資料의 對象으로 삼아 記述할 것이다. 왜냐하면 方言形 혹은 때로 口語形은 標準文語形에 比하여 變化의 保守性뿐만 아니라 變化의 尖端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 世代差가 문제가 되나 이는 敎育이라는 非言語的 事實을 고려하면 本攷와 같은 共時的 出發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못할 것이다.

第一音節에서의 o > ɔ 가 되는 경우, 語頭의 唇音은 [p, p^h, m (b^m)]

으로 실현되며 /o/는 mid. back [ɔ] [ɔ̃] 또는 [y]로 실현되는데(金陵郡 등의 接觸된 地域에서는 [ə]로 나타난다: ex [pəri] ‘보리’), 이는 /o/가 圓唇性を 弱화시킨 音聲에 해당된다. I의 i) ii)의 資料들은 [ɔ̃]로 실현되어 ‘문저>먼저’에서의 o>ɔ의 音聲實現에 완전히 平行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다음에 iii)의 例들은 (y)로 인식되는 部類로서 敎育을 받은 話者들은 Clarity Norm에서 o를 유지시킴이 일반적이다.

다음에 이들 資料가 보여 주듯이 o>ɔ의 非圓唇母音化는 後續되는 子音에 의하여 어느 정도로 制約을 받는 듯하다. 이 非圓唇母音化가 가장 강하게 條件지워 지는 것은 ㄴ, ㄷ, (ㄷ, ㅅ) 등이다. 이들은 齒音이란 子音部類로 묶여지는데 文獻語에서 고정되어 버린 「먼저, 번데기, 버선, 벗나무」 등과도 平行되는 條件이다. 이러한 後續子音의 制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왜 o가 그에 對當하는 非圓唇의 ɔ로 되었으며 또 그것은 母音體系에 대하여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Ⅲ. 母音體系와 非圓唇母音化

現代國語의 各 方言은 疎密의 差가 있을지라도 圓唇系列과 非圓唇系列로 나누어 질 수 있는 母音體系를 가지고 있다⁽⁶⁾ 中部方言의 대표적인 最大의 母音體系는 다음과 같이 想定될 수 있다:

前部		後部	
이	위	으	우
에	외	어	오
애		아	

(6) S. Martin (1951), ‘Korean Phonemics’, *Language* 27—4

許 雄(1965), 國語音韻學

金完鎭(1967), ‘音韻史’, 韓國文化史大系 V

鄭然燾(1968), ‘慶南方言의 音韻’, 國文學論集(檀國大) 第2輯

그리하여 現代國語의 母音에서 圓唇性의 有無에 의한 相關的 對立은

이	에	애	으	어	아
위	외	×	우	오	×

와 같이 高·中母音의 前部·後部에서 각각 이루어지며 「애」와 「아」는 無關的이다. 이러한 母音體系에서 보아 唇音 아래에서의 $o > \bar{o}$ 는 圓唇 o 가 그 相關的 對立의 짝인 非圓唇 \bar{o} 로 바뀌는 「非圓唇母音化」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非圓唇母音化는 唇子音과 圓唇母音 사이에서의 機能上의 異質化가 되며 同質的인 統合的 發達인 近代國語의 $i > u$ 와는 逆行의 現象이 될 것이다. 즉 $i > u$ 는

Labialism + unroundedness → Labialism + roundness (rounding)

임에 反하여 $o > \bar{o}$ 는

Labialism + roundness → Labialism + unroundedness (unrounding)

인 것이다. 이와같이 逆行의 現象은 地理的 分布의 相補性을 가지면서 口蓋音化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⁷⁾

깃 > 기(羽) 질드러다 > 길드러다(制)

맛더다(>맛지다) > 맛기다(말기다 任)

우리는 어떤 言語變化를 항상 規則的으로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正·反 現象은 그 優劣의 差가 있기는 하나, 어떤 言語變化가 일정하게 鞏固적으로 반드시 規則化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잘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言語社會는 流動的이며 異質的 構造를 흔히 포함하며, 言語 內的·外的 要因들에 의하여 여러 變異形

李惠淑(1969), 'An Attempt of Reformulations of Phonological Features for Korean, 論叢(梨大) 第13輯

拙稿(1969), '黃潤地域語의 音韻', 서울大學校 教養課程部 論文集 第1輯

(7) 李基文(1961), 國語史概說 p. 170

許 雄(1965), 前掲書 p. 510

拙 稿(1969), 前掲論文 p. 54

構造를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그 言語가 共時的으로나 通時的으로나 흔히 많은 不規則性和 때로 軟弱한 變化를 보이게 됨은 오히려 자연스러스러운 일일 것이다. 또한 이렇게 일어나는 몇개의 音韻變化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變化는 同時的 묶음 속에서나 連鎖反應 속에서 記述될 수 있을 것이다. (8) $o > ɔ$ 도 例外는 아닌 듯한데 이 문제는 다음 章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現代國語의 圓唇的 資質에 의한 對立은 뚜렷하나, 그 變異音을 보면 그 對立的 價値는 弱化되는 듯하다. 前部母音系列에서 [y]와 [wi](또는 [we]), [ɸ]와 [we](또는 [we])는 각각 對立的 짝을 가지기가 힘들다, [i] [e]에 圓唇的 機能을 가지는 [w]가 동시적으로 실현되는 理由에서 각각 音韻構造上的 單位로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前部母音系列보다 後部母音系列은 共時的으로나 通時的으로나 보다 강한 圓唇的 資質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前者보다 강한 對立을 가지는 後者도 變異音에 있어서는 역시 약한 圓唇性을 가지어서 圓唇的인 [u, ɔ]에 대하여 非圓唇的인 [u, ɔ]가 흔히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圓唇性的 疎遠性은 唇音 아래에서의 圓唇的 機能을 그 唇音에 讓渡하면서 非圓唇母音化를 일으키어, 그 결과 $o > ɔ$ 와 같은 變化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高母音에서의 音韻論的인 $* /u/ > /i/$ 는 近代國語 이후의 강력한 圓唇母音化인 $i > u$ 로 因하여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하여 唇音 아래에서의 $o > ɔ$ 는 音韻對立에서 보

i	→	u
ɔ	←	o
		a

아 「非圓唇母音化」로 規定되며, 그 變異의 要因은 母音體系上的 軟弱한 圓唇性이 唇音의 示差的 資質로 因하여 喪失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後部母音에서의 中母音間的 非圓唇母音化는 그 高母音間的 圓唇母音化와 相反된 方向을 取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後部母音에 있어
서의 唇音과의
統合的 關係

(8) Y. Malkiel (1968), *Essays on Linguistic Themes*, pp. 19~46

IV. 非實現條件들

위에서 規定한 바와 같은 이 非圓唇母音化 $o > ɔ$ 를 보다 분명하게 검토하기 위하여서는 $o > ɔ$ 의 非實現條件들을 알아 보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한다. 이 非實現條件들의 대부분은 史的 過程(특히 母音體系의)과 밀접히 관련되어 近代國語의 母音體系로부터 現代國語의 그것에로의 變化가 동시적인 묶음 속에서 해명되어야 할 要請이 있게 된다.

i) 이 非圓唇母音化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로 齒音을 後續시키고 있다. 이 條件은 文獻語로서 고정된 「먼저, 먼지, 번데기, 벗나무, 버선」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말할 것도 없이 이 條件은 後續母音 o 와 $ɔ$ 에 대하여 音聲的인 相似(similitude)로 이끈다. 이를 反證하여 주는 사실로서는 軟口蓋音과 喉音앞에서는 o 가 圓唇性을 강력히 유지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後續子音이 唇音 및 硬口蓋音인 경우 極히 軟弱하게나마 $o > ɔ$ 의 例가 발견된다: $ㅍ > ㅑ > ㅓ$ (> ㅕ)(擘), 모처럼 > 머처럼. 現代 京畿地域語에서는 唇音을 後續子音으로(ex. ㅍ, ㅑ) 또는 齒音 다음에 唇音을 다시 포함시킬 때(ex. 보름, 모름직이) 圓唇性을 강력히 유지하고⁽⁹⁾ 硬口蓋音의 경우는 약하게나마 유지함이 보통이다. 이는 後續子音이 齒音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非圓唇母音化의 한 變因이 調音的인 데 있음을 보충한다고 믿어진다.

또한 後續子音 가운데에서도 ㄴ, ㄹ 등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口語形에서의 第一音節로서의 /몬-, 물-, 분-, 불-/들을 가지는 語彙가 적다는 理由에서도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몬」(物)이 死語가

(9) 忠南 天安, 牙山, 唐津 등 꽤 많은 地域語에서 「먼지」에 대하여 「몸지」가 쓰이는 바, 「ㄱ」와 後續子音 唇音과의 관계가 흥미롭다.

되어 버린 것은 이러한 사실과 함께 생각할 때 暗示的이다. 音節意識이 강한 國語에서⁽¹⁰⁾ 흔히 쓰이지 않는 音節構造를 忌避하는 것은 「-갈」과 같은 드문 音節을 포함하고 있는 「달갈」에 대한 方言形에서도 확인된다: 달기알(tark-i-ar), 달결(tark-j-or), 달갈(tark-φ-ar), 달알(tak-φ-ar) 등.

ii) 이 地域語에서는 唇音 아래에서의 前部母音系列의 圓唇母音(y φ)을 찾기 힘든데 이는

a) 唇音 아래에서(다른 子音 아래에서보다 더 강력하게) ‘기>니>ㅣ’의 變化: 뷔—>빅—비—(空), 휘우—>피우—>피우—(燒) 등

b) 二重母音의 維持: 피~모이 등

c) 前部母音系列에서의 圓唇的 對立의 力動性(y>i 및 φ>e 로의 흡수) 등에서 그 理由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唇音 아래에서의 y와 φ의 忌避는 o>ɔ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唇音과 圓唇母音과의 연결을 꺼리는 사실을 밑받침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唇音 아래에서의 圓唇性的 機能弱화라는 사실을 뒷받침하여 주는 周邊的인 例들이 있다. 唇音 아래에서의 圓唇性的 弱화는 形態素 境界에서나 母音 앞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sam + wɔr > [sam^wɔr] > samɔr 三月

sip + wɔn > [šib^wɔn] > sipɔn 拾원

po- + -ara > pwara > [p^wara] > paɪra 보아라

puɔk > pwɔk > [p^wɔk] > pɔɪk 부엌

muɔ(s) > mwɔ(s) > [m^wɔ(s)] > mɔɪ(s) 무엇

iii) 울라우트나 縮約에 의하여 o, u가 前部母音 φ y로 되는 경우에도 前項에서 언급한 前部母音系列의 理由에 준한다: 보기싫다>뵈기싫다>베기싫다, 보이다>뵈:다>베:다(>비:다), 모이다>뵈:다>메:다 등. 이러한 사실은 非圓唇母音化가 울라우트 縮約 등과 같은 史

(10) 拙稿(1967), ‘國語의 倒置現象 小攷’, 學術院論文集 第6輯

的 發達에 後行되었음을 또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말하여 준다고 믿어진다.

iv) 中部方言의 特徵 가운데 하나인 $o \sim u$ (혹은 $o > u$)를 포함하는 第一音節의 경우에는 非圓唇母音化가 실현되지 않는다: 못하다~못하다, 모르다~몰르다, 모:자라다~무:잘르다(무:질르다), 포대~푸대 등.

이 $o \sim u$ 인 경우에 $*/u/ > /i/$ 의 非圓唇母音化가 기대되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近代國語 이후의 國語 全般의 圓唇母音化($i > u$)로 아직 실현되는 例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o \sim u$ 인 경우에 非圓唇母音化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은 비록 自由變異를 하더라도 圓唇 /u, o/가 非圓唇 /i, ɔ/와 팽팽한 相關的 對立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長母音 音節에서는 非圓唇母音化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불:」(腮)과 같은 長母音 音節을 가진 單語는 形態論的 構成에서 短音化를 거쳐 非圓唇母音化를 일으키게 된다:

불: +거리 > 불거리 > 벌거리 ~ 벌거지

불: +따:귀 > 불따귀 (불 따구니) > 벌때기 ~ 벌태기 ~ 벌따구니

만일 形態論的 構成에서 長母音을 유지하면서 非圓唇母音化가 일어난다면, 中部方言의 한 特徵인 $i: > ɔ:$ 로 因하여 $*/o: > ɔ: > i: > u:/$ 의 變化를 일으키게 된다. 적어도 示差的인 音長을 가지고 있는 京畿地域語에서는 그 音長은 흔히 統合的 變動(움라우트 등)을 방해하는 要素가 되기도 한다. (11)

흥미있는 것은 $ɔ: > u:$ 의 例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ɔ: > i:$ 에 다시 $i: > u:$ 의 圓唇母音化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pɔ:ri > pi:ri > pu:ri$, $pɔ:ri- > pi:ri- > pu:ri-$. 이러한 長母音 關係는 적어도 「\」의 消失로 因하

(11) 拙稿(1969), '京畿地域語의 形態音韻에 대하여', 全國 國語國文學研究發表大會(국어국문학 46)

여 ‘어’가 ‘으’ 쪽으로 또 밑으로 變異音域을 이동시킨 다음에야 非圓唇母音化가 可能하리라는 사실을 暗示하여 준다.

vi) 開音節의 單音節語는 ㅁ을 강력히 유지한다: 보(襖) 모(秧 方)포(砲 脯)등. 이는 用言語幹 ‘보-’ 등이 拘束形式으로서 語尾와 밀접히 연결되는데 比하여 體言의 그것은 自立形式으로서 休止 앞에 나타나 獨立性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들의 複合語 및 派生語도 圓唇 ㅁ을 유지함이 일반적이게 된다.

vii) 한편, 빠개다~뻬개다~뵈개다, 짜개다~찌개다~쪄개다, 포개다~퍼개다 등의 母音變動이 意味上的의 微細差를 보이는 바, 이는 차라리 音聲象徴과 有關한 것이다. 따라서 本攷에서 論述한 非圓唇母音化의 調音的 條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에서 보아, 唇音 아래에서의 $o > ɔ$ 는 母音構造上的의 「非圓唇母音化」로 規定될 수 있으며, 그 原因은 아마도 後續子音이 齒音이란 調音的 要因 및 母音對立에 있어서의 圓唇性으로 因한 것인 듯하다. 그리하여 Labialism+roundness → Labialism+unroundedness를 밝게 되었고 高母音에서의 圓唇母音化($i > u$)에 대하여 中母音에서의 非圓唇母音化($o > ɔ$)로 軟弱하나마 相反된 方向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現代史로부터 한 傾向을 말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겠지만, 共時的事實은 通時的事實의 最近史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兩者를 밀접히 關連시킨다면 그 推斷은 더욱 틀림없게 될 것이다. 강력한 文字 및 共通國語의 影響에도 불구하고 中部方言 또는 그 侵飾된 地域語에서 여전히 非圓唇母音化가 실현되고 있는 것은 母音體系에 대하여 자못 흥미로운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中部方言에 있어서도 下位方言에 따라 語彙上的의 差異가 있는데 이는 下位方言地域의 歷史·社會·文化·地理 및 隣接方言과의 接觸關係 등 여러 相異한 要因들에 依할 것이다.⁽¹²⁾

(12) I. Forder (1965), *The Rate of Linguistic Change*, Mouton.

우리가 “方言”이란 概念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folk dialect에서의 非圓唇母音化를 단순한 「自由變異」(cf. Kim C.-W.)로 皮相的으로 보아 넘기기에는 아쉬운 느낌이 없는 바 아니다. 단일 한 方言에서 ‘몬져~먼저’가 自由變異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二重方言을 사용하는(bi-dialectal) 혹은 흔히 保守的인 南部方言과 中部方言과의 接觸方言(dialect in contact)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接觸된 두 地域 사이에서의 言語上的의 干涉現象(interference)은 특수한 研究를 요망한다.

다음에 「몬져>먼저」에 대하여 「低舌母音化」라는 또하나의 견해가 있었다. 이 唇音 아래에서의 $o > ɔ$ 는 以上에서 筆者가 論述한 內容으로 보아 「低舌母音化」라는 주장(cf. 劉昌惇)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다. /ɔ/의 變異音의 일부가 低向으로 이동하고 있을지라도 그 對立的의 機能에서 보아 音韻論的 非圓唇母音化일 수 밖에 없다.

V. 變化의 時期

現段階에서 國語方言史를 정확히 記述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나, 國語音韻史에 비추어 이 非圓唇母音化의 大략적인 時期가 合理的으로 推定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使用頻度가 그리 크지 못한 이들 用例이지만 대체로 18世紀 後葉에 부분적으로 비롯되지 아니하였는가 여겨진다.

近代國語 前半期까지 「몬져」(先)로 表記되던 것이 <諭諸道道臣綸音> (1794 A.D. 奎章閣本 4168)에서 「먼저」(6)로 나타나며 그 후 다음과 같은 用例도 보인다.

十九史略諺解(重刊本)

그 먼저는 꿀은 설이니(一, 28)

念佛普勸文(海印寺版)

부더 먼저 압길흘 솔피더(37)

念佛普勸文(興律寺版)

먼저 죽거나 하는 즈식은(33)

먼저 주근 열흔희만애(40)

잡아 가도야 먼저 못고(40)

먼저 미타령의 네호고(41)

먼저 범흔 무간죄퇴(42)

부더 먼저 압길흘 솔피더(47)

大明復讎歌(李尙憲先生回甲紀念論文集 所收)

三河巡撫 먼저(먼저) 가고(553)

뒤를 먼저(먼저) 씨를 적의(557)

方言的인 色彩가 짙은 「念佛普勸文」등 이들 資料에 대하여는 보다 精密한 方言史的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가 「먼저」로 文獻上으로 명백히 두드러진 것은 19世紀 後葉에 들어서면서의 일이다.

규합총서(1869 A.D.)

충계를 먼저 지지고(18)

독을 새희 못고 먼저 너코(8)

먼저 장국을 쓸인 후에(9)

먼저 물에 줍기게 말고(11)

쓸갈네 먼저 조고막치 부어(15)

過化存神(1880 A.D.)

신명은 임의 먼저 드르시고(3a)(「三聖訓經」 5b)

三聖訓經(1880 A.D.)

마음은 먼저 귀신의 축노하여

조군령적지(1881 A.D.)

멀니 먼저 빅성의게 밋느이(4)

蠶桑輯要(1886 A.D.)

먼저 성너 빈 쌍에 시무고

먼저 난 뒤에도

그리하여 「몬저」의 保守的 表記가 今世紀까지 내려 오기도 하였으나(例 「大東歷史略」 1910 A.D.), 적어도 中部方言에서는 19世紀 이전에 「먼저」(>「먼저」)로 동요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非圓唇母音化는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의 消滅과 깊은 力動的인 關係를 가지고 있다. 「\」의 消滅이 短音의 「ㄱ」[ə]를 [ɔ](또는 [ʌ])로 이끌리게 하고⁽¹³⁾ 長音의 「ㄱ」를 上部로 더욱 끌리게 하여 (ə→i) 두 音韻 사이의 安全間隔을 흐리게 하였기 때문에, 「\」의 消滅 이전에 이 非圓唇母音化가 이루어졌다면 ə와 i의 밀접한 관계로 다시 i>u의 圓唇母音化를 되풀이할 可能性이 짙게 된다. 따라서 變化의 準備期를 거쳐 「\」의 消失이 이루어지고 後部母音系列에서 圓唇性에 의하여 ɔ와 o가 對立의 짝으로 이루어진 후에야 이 非圓唇母音化는 合理的으로 可能하게 된다. 또한 17世紀 末葉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唇音 아래에서의 圓唇母音化가 완성된 이후에야 비릇되었을 것이고, 올라우트 縮約 長母音(ə:>i:) ⁽¹⁴⁾ 등에 관련하여 19世紀 中葉에나 이 非圓唇母音化가 少數의 例에서나마 확고하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몬저」 이외의 o>ɔ의 文獻上的 발견은 곤란하다. 다만

뻬(拏 「雅言覺非」 一, 23)

벗나모(樺皮木 「華語類抄」 28)

과 같은 例들은 이 非圓唇母音化의 時期를 지지하여 주는 듯하다. 現代方言에서와 같은 정도로 보여 주게 된 것은 역시 20世紀에 들어와 文

(13) 李基文(1961), 前掲書 p. 165

(14) ə:>i:에 대한 例로 「조군령적지」의 「으드리니」(得 6) 또 「過化存神」의 「스리지」(樺 8a) 등이 이미 나타남은 그 時期와 관련하여 特記할 만하다 하겠다.

獻上에서 확실하게 된다.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 A.D.)은 정확한 方言 區分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例들을 가지고 있다.

모본단~모번단, 보늬~버네, 보리~버리, 보채다~버채다, 보선~버선, 번연히~본연히, 먼지~몬지(몬대기) 등

그 외에 「의국 녀즈 라란 부인전」(1907 A.D.) 「누타키교디락」(1908 A.D.) 등도 「먼저, 먼침」 등으로 대부분 보이고, 대표적인 口語的 表記를 지닌 「註解語錄總覽」(1923 A.D.)도 「먼저」는 말할 것도 없고 「뺨, 버리, -버덤」 등도 보여 주고 있다.

IV. 結 論

이상으로써 中部方言 特히 京畿地域語를 중심으로 唇音 아래에서의 $o > ɔ$ 를 文獻語(몬저 > 먼저)로부터 方言形(보리 > 버리)에 이르기까지 검토하였는데, 이를 要約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i) 이 唇音 아래에서의 $o > ɔ$ 는 圓唇性에 의한 後部母音構造에서 보아 「非圓唇母音化」로 規定함이 좋다.

ii) 齒音을 주된 後續子音으로 하여 音聲的인 相似(similitude)로 이끌고 거기에 圓唇性的 軟弱性으로 唇子音과 圓唇母音과의 연결에서 圓唇性은 非示差的이 된다.

iii) 「ㄴ」의 消失로 因한 「ㄷ」의 이동, 圓唇母音化(一 > ㅛ), 음라우트, 縮約, 唇音 아래에서의 圓唇的 前部母音의 忌避, 長母音 ㅓ > ㅕ, 唇音 아래에서의 $o \sim u$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이 非圓唇母音化는 18世紀 後葉에 비롯되어 19世紀 中葉에 확실하여 지고 다시 現代 京畿地域語에서와 같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적은 結論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假說은 다음과 같다.

i) 現代 國語의 後部母音에서 o 와 $ɔ$ 는 圓唇性에 의하여 對立을 이루

고 있는 짝이라는 點

ii) 現代國語의 母音體系 및 그 安全間隔은 19世紀 中葉에 「기 기」의 單母音化를 제외하면 거의 同一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點

iii) 나아가서, 어떠한 言語의 變化가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優劣의 差는 있더라도 正·反 現象을 二重的으로 가질 수 있다는 可能性.

[1969. 10 .31]